

7월 2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2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캐터필라의 힘`..다우 0.7%↑	뉴욕증시가 21일(현지시간) 뒷심을 발휘하며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음. CIT 그룹의 파산 우려감이 재차 불거졌지만 주요 블루칩 종목들의 실적개선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67.79포인트(0.77%) 상승한 8,915.9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91포인트(0.36%) 오른 1,916.2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45포인트(0.36%) 상승한 954.58을 각각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음. 개장전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라의 2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전망치를 3배나 웃돈 점이 주식시장의 `어닝 모멘텀`을 자극했기 때문임. 그러나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경기위축 둔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 등으로 출구전략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히자 시장의 반등세가 주춤했음. 이런 가운데 미국의 20대 은행인 CIT 그룹이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파산보호 우려감이 재차 부각되자, 뉴욕증시는 장중 한 때 약세로 돌아서기도 했음. 그러나 주요 종목들이 잇따라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내보이면서, 장 후반 `어닝 모멘텀`을 기대한 매수세가 강화됐고, 결국 뉴욕증시는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음.
크레딧 스위스 S&P 500지수 연말 목표가 1,050선으로 상향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940에서 1,060선으로 상향 조정한지 하루만에 크레딧 스위스도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종전보다 15% 높은 1,050선으로 새로 제시했음.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는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15% 가량 높은 1,05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임. S&P 500 지수는 전날 8개월만에 처음으로 950선에 올라선 상태임. 크레딧 스위스는 이처럼 미국증시 목표지수를 상향 조정하면서 국채 보유비중을 줄이는 대신 주식을 매수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조언했음.
버냉키 "경기위축 완화...출구전략은 이르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하기 위해 상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경제의 위축세가 상당할 정도로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최종 수요와 생산을 보면 안정의 초기 징후가 보이고 있고,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9개월만인 지금 신용 시장의 상당 부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냉키 의장은 그러나 하반기 경기회복세는 매우 완만한 반면 실업률은 2011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음.

제목	주요 내용
日 금융시장, 정치 공백 `악영향`	일본이 지난 21일 중의원을 해산한 후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금융시장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표면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주된 요인은 시장이 커다란 정책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시장에서는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를 이끌게 될 경우 받게 될 수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카하시 후미유키 바클레이즈캐피탈 애널리스트는 "민주당이 주가를 부양시키는데 필요한 국제적 경쟁력이나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음.
외환보유액 34억불 늘어난다..`IMF SDR 배분`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이사회는 지난 17일 2,500억달러 규모의 SDR 발행을 승인하고, 총회의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 쉽게 말해 IMF라는 일종의 중앙은행이 2500억달러 규모의 SDR을 찍어내겠다는 의미. SDR(Special Drawing Rights)은 IMF가 창출하는 국제통화로서 회원국, IMF 및 국제기구 등 공적부문에서만 사용되고 있음. 보유 국가는 국제수지 악화시 SDR을 다른 회원국들과 달러, 유로 등 교환성통화로 바꿀 수 있음. 이번 발행은 지난 4월 G20 정상회의에서 IMF가 SDR을 발행해 2,500억달러의 유동성을 세계경제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임.
LG화학, 中유화사와 30만t ABS공장 합작	LG화학과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21일 중국 광둥성(廣東省) 혜주시 대아만개발구에 연산 30만t 규모의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공장을 짓기로 합의. 50 대 50으로 총 3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감. 오는 2011년 하반기에 15만t 규모로 상업 생산을 시작하고, 오는 2013년까지 생산량을 30만t으로 확대할 계획. 중국 3대 석유화학업체인 중국해양석유는 정유시설과 나프타 분해설비(NCC)를 갖춰 ABS 공장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LG화학은 세계 ABS 시장점유율 1위의 기술력을 활용할 계획.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